



매우만족★★★★★



경기센 파업, ★★★★★

고객도 우리도 ‘매우만족’하는 파업이 가능할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다! 파업투쟁에 고객서비스를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 경기센 내근도우미로 변신~!

“조합원들이 기립해서 인사하고 맞아주니 고객님 ‘여기 서비스 완전 좋다’ 하고 들어가시네요.”
“고객들도 편해 하시고 놀라서 관심도 보이시니 우리는 보람되고~”

지금까지 고객만족(CS)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삼성의 실적, 이윤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고객만족(CS)을 노동자 좋고 고객 좋은 고객만족으로 바꾸자! 고객들을 응원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오늘 확인했다! 제일 잘 하는 것 하니 보람차기까지 하다! 그래서 우리 파업 점수는요, “매우만족! 별 다섯 개!”

썸길동과 응답하는 시민들

우리가 21세기 흥길동인 이유는 세 가지다. 1) 애비를 애비라 부르지 못하는 흥길동처럼 삼성 엔지니어지만 그걸 부정당하는 21세기 서자라서, 2) 고객이 콜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니까, 3) 이제는 노동권을 위해 언제 어디든 나타나는 흥길동이 되어야 하니까! 21세기 흥길동, 썸길동이 된 우리는 센터 안, 센터 밖, 신호등 앞, 터미널, 에스컬레이터, 백화점, 피씨방까지 경기남부 방방곡곡에 출몰했다. 오늘도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선 썸길동들에게 시민들의 따뜻한 응답들도 이어졌다. 분당의 한 조합원은 체어맨을 탄 시민에게

홍삼음료 몇 병을 건네받았다. 평택시민들도 두유로 마음을 전했다. 75년 무노조 삼성에 맞서는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이동과 준비시간 다 빼고 분급 225원 받으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처럼 작지만 따스한 시민들의 응원 때문이다. 사장은 썸까려고 노력 중, 썸길동과 시민들은 제대로 응답 중!

밴드 넘어 온라인 평정!

언론과 문화마저 쥐락펴락하는 삼성에 맞서, 온라인 대응을 잘 하는 것도 썸길동의 중요한 투쟁! 5일 경기센들은 갤럭시폰 들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각종 SNS 가입하며 온라인행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또 하나의 약속> 홍보, 예매도 온라인으로 모두 해결~! 성남사이버전사들은 피씨방을 접수해 체불 임금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부 진정도 21개나 넣었다. 위법을 스스로 헤쳐 나가는 방법도 익혔다.

불법 대체인력 투입도 비상

파업이 시작된 후 사장들과 삼성은 대체인력 투입하느라 난리가 났다. 평택센터에는 서수원센터 엔지니어들을 투입했다. 하지만 서수원엔지니어 중 몇 명은 건당 1만원 추가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일방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한다며 콜 반납 후 철수했다. 분당센터에는 용인센터와 본사 엔지니어가 투입되었지만, 용인엔지니어들은 다음 주에도 지원보내면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 한다. 센터 안에서는 눈치 볼 수밖에 없었지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조합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응원을 보낸다.

언론은 “대체인력 투입, 불붙은 파업에 기름 부은 꼴”이라며, 대체인력의 불법성 여부를 조명하고 있다.

경기센은 “또 다른 처지에 있는 우리 동료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열심히 신나게 싸울 계획이다. 대체인력 투입하면 긴장할 줄 알았나?”

긴장은 사장님들 뒤편이다.



흥내만 내고 확실한 것 없네

5일 오후 2시 분당센터에서 교섭이 열렸다. 경총은 노사 간 입장 비교표를 만들고 여기에 12개 조항을 추가하여 안을 냈다. 과연 교섭에 진전이 있었을까?

노력한 흔적만?

교섭안을 뜯어보니 원래 법이 보장하는 것들만 잔뜩 나열돼 있었다. 약속했던 노조활동 보장, 임금, 복지 등에서 진전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지난 교섭에서 경총은 “교섭국면으로 가고 싶다. 진전된 안 내겠다.”며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역시 진전이 없다. 안을 성실하게 냈다면 교섭국면으로 가겠다는 증거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아무 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노력했다는 흔적’만 보여주었다. 수백명의 노동조건을 다루는 노사 간의 교섭에서 ‘별건 없지만 노력했으니 이해해달라?’ 한국 노사관계의 한 축인 경총의 프로의식이 고작 이 정도인가?

확실한 것 내놔야

안을 제출한 후 잠시 정회했다. 이 때 밖에있던 분당 조합원들이 “성실교섭 거부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고 구호를 외쳤다. 당황한 경총 교섭대표는 “파업 중인데도 교섭하러 왔는데 왜 날 규탄하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다. 분당센터 조합원들은 교섭장에 모두 들어가 “임단협 투쟁으로 쟁취하자!”며 항의했다. 경총교섭대표는 기분이 상했는지 정회를 요청하고는 나갔다가 돌아와 교섭을 끝냈다. 황당한 일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중이다. 경총은 쟁의기간 중에도 성실하게 교섭하겠다고 지노위에서 약속했다. 당연한 걸 해놓고 생색내고, 법이 보장하는 것 내놓고 교섭 진전 운운한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고, 경총과 더 이상 시간낭비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노조는 “정말 교섭국면으로 가고 싶다면, 흥내는 그만 내고 확실한 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다음 주 중 교섭 일정을 잡는다. 또 흥내만 낸다면, 우리는 경기센스타일로 맞설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날,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느낌 지금 완전 충만하니까!

*자세한 교섭내용은 모든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의 반격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의 실화를 담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높은 예매율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인해 상영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상영관 확대를 위한 아고라 청원운동을 진행했고, 예매운동을 벌였다. 컬투, 조달환, 이경영 등 연예인들도 티켓후원과 홍보맨을 자처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2월 8일 안산과 평택에서 영화관을 통째로 대관해 조합원들과 가족들과 같이 본다. 결국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상영관이 확보되었고, 바로 오늘(6일) 개봉한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도 적극 나선다. 중앙쟁대위는 조합원 1000명이 모두 영화를 관람하고 삼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오늘 경기센들도 ‘또 하나의 약속’을 보러간다. 분회별로 자기 지역 개봉관에서 여러 회차로

팀을 나눠 보기로 했다. 영화도 보고,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의 이야기도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영화관람 후에는 온라인 전사가 되어 SNS에 폭풍 후기를 날릴 계획이다.

